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2020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2020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팀장 :	인경훈	인천원당초등학교
총무 :	이은희	남동구 마을교육활동가
팀원 :	김동윤	인천가원초등학교
	박성준	인천새봄초등학교
	박소양	인천구월서초등학교
	백인식	교육연극창작소 상상과몸짓
	최미선	극단 공감



I. 연구 개요

1.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필요성

- 혁신교육 실천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중요성 대두
- 관 중심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민, 관, 학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교육 자치 실현
-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는 학교에 적용할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상황
-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대두

2) 프로그램 개발 목적(방향성)

■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전문성 신장

- 마을교육 사업 담당자가 민관학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교육혁신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 분권과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프로그램 개발 참가자가 자체 협의회를 운영하고, 마을교육지원단과 협력

2. 교육대상

1) 교육대상

■ 교육혁신지구 사업 담당자(민관학)

II. 사전 연구

1. 참여형 교육연극과 교육 거버넌스

1) 참여형 교육연극

■ 참여형 교육연극의 대표적 형태인 시민연극의 의미

- Applied Theatre/ Drama는 199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호주, 미국의 교육연극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용어이다 (Philip taylor, 2009: 309-310). Applied Theatre/ Drama는 시민연극으로 전통적인 공연장이나 극장이 아닌 학교, 지역의 문화 센터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시민연극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연극을 만들고 공연 후에는 관객들과의 진지한 토론을 한다.
- 시민연극은 관객 혹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당면한 공책/사적 문제들에 관한 이슈, 사건, 의문 등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작업이다.
- 시민연극은 연극이라는 미적 형식의 힘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개체로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시민연극의 구성과 실행의 여덟 가지 원칙(Philip taylor, 2009)

- 원칙1. 시민연극은 철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원칙2. 시민연극은 불완전성을 추구한다.
- 원칙3. 시민연극은 개연성을 지닌 이야기를 제시한다.
- 원칙4. 시민연극은 관객의 참여가 중심이 된다.
- 원칙5. 시민연극은 현실의 딜레마를 제기한다.
- 원칙6. 시민연극은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원칙7. 시민연극은 미적인 매체이다.
- 원칙8. 시민연극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2) 교육 거버넌스

■ 교육 거버넌스의 의미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교육을 위한 통치, 지배구조 형성 의사 결정구조 교육활동의 실천등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 교육거버넌스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다양한 장면에서 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슨 과정을 거쳐 교육을 통제하는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김용련, 2019;재인용).

■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원리

○ 참여형 의사결정 체제

- 교육공동체 운영에 관련하는 참여 주체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공식적 교육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행정기관인 지자체, 학부모와 학생시민단체 등 모두가 해당된다. 이러한 모든 참여 주체는 교육공동체 기획, 운영, 평가 등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르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 공동체 교육 운영 및 지원 체제

- 교육공동체 운영에 관련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현실화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이 필요하다. 만약 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교육청의 전문적 교육컨설팅, 시민단체의 자발적 기여 등이 각자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하나로 묶고 서로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 교육공동체 리더십

- 구성원 등의 공통적 목표와 이의 달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구축은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기여와 헌신에 기초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완성시키고자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적 기여가 필수적이다.

○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동체 문화

-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동체의 특성이 자발성, 지역성, 차별성,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접근보다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문화의 전제조건은 민주적 참여와 구성원들 의견의 반영에 있다. 지역교육현안과 정책 방안들에 대하여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토론과 협의의 과정에 참

여하고, 교육행정 주체들은 이들과 대화하며 지역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소통의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형 교육연극의 원리

○ 참여자의 현실 문제를 주제로 한다.

- 각기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 뜻을 모아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은 거버넌스를 경험하며 입장차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충을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연극놀이를 통해 마음을 충분히 연 후 연극 활동을 이어간다.

-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 관객의 참여 중심 연극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담당자 간 소통한다.

-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배우가 한 편의 연극을 만들어 보여주기 않고,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도록 한다.

2. 교육 대상 연구

■ 인터뷰 대상: 교육혁신지구 협의회 참석자 중 구청 혁신지구 사업 담당자 9명

■ 인터뷰 일시: 2020년 7월 13일(월) 15:00-18:00

■ 인터뷰 장소: 미추홀구청 청소년수련관

■ 인터뷰 진행자: 인경훈, 박성준, 이은희, 박소양

■ 인터뷰 내용 분석

○ 업무 담당자의 경력 부족

- 업무 담당자 실경력이 6개월 이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올해 실제 업무 운영 사례 부족

-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렵다.

- 학교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고 있다.

○ 민관학 협력의 어려움

- 민과 학을 모두 관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구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관 내부에서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교 업무담당자가 많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
- 지자체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을 작년에 시작한 곳도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에 관한 민원도 많다.
- 마을교육활동가와 학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어렵다. 활동가들은 프로그램들이 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 예산 사용의 어려움

-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사용 차침이 달라서 예산 사용 관련 갈등이 있다.

○ 혁신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 지자체 및 학부모들은 혁신지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 혁신사업은 초 · 중학교까지만 관심이 있고 고등학교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혁신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 지자체 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혁신지구 사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 민관학 참여와 영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3. 교육 거버넌스 및 참여형 교육연극 관련 사례 분석

1) 인천 남동구에서의 교육 거버넌스 필요성 분석

- 인천시 남동구- 교육지원청과 구청 간의 교육 거버넌스 협업 필요성 (김용련, 2019)
 - 설문조사 대상: 인천시 남동구 학부모(431명) 및 교사(96명)
 - 설문조사 주제: 남동구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의견 조사
 - 설문조사 결과: 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 구청 간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남동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협치 강화와 교육네트워크 강화,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 지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구청, 지역사회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지역에서 교육혁신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방향을 맞추어가지만, 행정 협력을 하지 못해 성과가 드러내지 못하거나 같은 정책이나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자와 지자체의 행정직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천가 및 전문가 협의회(FGI) 진행: FGI 참여 대상은 남동구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자 중에서 명성표집, 네트워크표집 방법에 따라 16명을 선정하였고,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시간 동안 FGI를 실시하였다.
 - 실천가 및 전문가 협의회(FGI) 결과: 남동구 마을교육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공공성, 전문성, 시민성을 가진 마을교육활동가가 남동구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의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및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학교 교직원 및 남동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으로 지원하고 실천하는 구청의 유연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인천 남동구의 설문 및 FGI 연구의 시사점: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자, 지자체,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다양한 집단이 한 곳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교육 거버넌스 구축 사례 분석(타 지역)

■ 구로·금천 교육 거버넌스 구축 (조성익, 2017)

○ 구로구 교육 거버넌스

- 초기에 시민사회영역과 학교교육영역이 연대하여 교육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구로 교육 거버넌스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두텁고, 거버넌스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다.
- 특히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민간영역과 학교영역은 적극적으로 교육의제를 제시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에서 공공영역의 역할을 이끌어냈다.
- 하지만 구로구 거버넌스는 교육국제화특구 결정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지 않 았음. 구성원 간 입장차이와 정보의 불균형으로 정보비용, 조정비용이 발생하였다. 또 한 민·관·학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협상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보비용과 협상비용이 발생하였다.
-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영역과 학교교육영역이 강하게 연대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대책위라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겨났다. 반면 공공기관영역과 기 존 거버넌스를 지탱해 주던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가 약화되었고, 지역 갈등으로 확산 되었다.

○ 금천구 교육 거버넌스

- 교육국제화특구 정책과정에서 「교육국제화특구기획팀」이라는 임시조직[T/F]을 설치하 고,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요인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였다.
- 「교육국제화특구기획팀」 회의를 통해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게 되었고 다문화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 각 당사자 간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지역 등이 참여하는 광역단위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가 구성되었고 협상을 진행 하였다.

○ 구로구와 금천구 교육 거버넌스 사례 연구의 시사점

- 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 정보비용, 조정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성공적인 교육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각 당사자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무 담당자 간 소통의 장을 열어서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3) 공동체 소통도구로서 연극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공동체 소통도구로서 연극의 역할에 대한 연구(양세라, 2019)

- 연구 사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간 계절학기 수업을 포함한 3학기의 강좌운영과정
- 연구 구성: 대학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참여자)이 대학 강의실이라는 공동체의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 연극이 응용될 수 있는 형식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연구의 의의: 수강생들은 체현과 역할연기 과정에서 감정과 정서적 해소, 공감과 위안, 대리만족 등의 감정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여러 다양한 전공분야의 수강생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타인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공유한 경험을 나누는 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연극을 대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수업의 참여를 통해 수강생들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기회와 역할, 그리고 듣고 이해하는 역할로 관객, 배우 등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면서 공감, 공유의 정서 속에서 공동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의 대상인 다양한 전공분야의 수강생들처럼 교육공동체를 함께 구성할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사,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는 타인이다. 이들 간의 협업을 위해서는 연극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II.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거버넌스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주제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소통	교육대상	교육청 및 지자체 혁신지구 사업 담당자	교육 인원	총 23명
운영 단계	총 2단계	단계당 운영시간	90분		
교육 분야	교육연극	교육 강사 수	총 7명 (주강사 1명/보조강사 6명)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매달 지역교육청과 구청의 혁신지구 담당자들과 함께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서로의 입장과 업무 환경도 모두 다른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고충을 나누도록 한다. 처음에는 연극놀이를 통해 몸을 풀고 마음을 연다. 이후 모둠별로 자연스럽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주제로 참여자들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본다. 모둠별로 만든 짧은 연극을 감상하고 이에 관한 느낌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1. 프로그램명 및 교육 목표

- 교육 프로그램명의 의미:**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해 교육혁신지구 담당자가 그들이 당면한 문제(주제)인 거버넌스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 교육 목표 :** 교육혁신지구 사업 담당자가 민관학 거버넌스에 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도록 한다.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앞으로 민관학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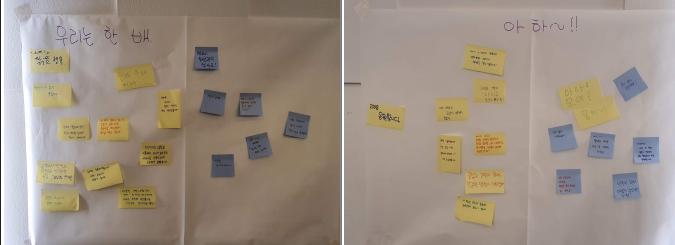
2.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 차시별 세부 교육 내용**

단계	회차	주제 또는 키워드	활동 목표		주요사항
			활동내용		
연극 놀이	1	인사전달놀이	<p>■ 몸 풀기</p> <p>1)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선다. 2) (벨소리가 들리면 걷는다.) 걷다가 만나는 사람과 배풀인사하고 ‘저는 ○○○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여러 명과 인사를 나눈다. (다시 벨소리가 들리면 활동을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p>		

		<p>3) (벨소리가 들리면 걷는다.)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과 주먹을 맞대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다시 벨소리가 들리면 활동을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p> <p>4) (벨소리가 들리면 걷는다.) 마주치는 사람과 점프하며 하이파이브하고, ‘야호’라고 소리친다.</p> <p>5) 나만의 개성 있는 인사를 정한다. 벨소리가 들리면 걷는다. 만나는 사람과 자신만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가 끝나면 서로의 인사가 교환된다. 교환이 되고 나면 상대방이 내게 한 인사가 나의 인사가 된다.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전달 받은 인사를 한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교환하게 된다.</p>	<p>※ 활동 시 장갑을 착용한다.</p> <p>※ 벨소리가 들리면 출발하고 또다시 벨소리가 들리면 제자리로 돌아온다.</p>
2	자석놀이	<p>▣ 상대방에 집중하기</p> <p>1)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이 짹을 이루고 마주본다.</p> <p>2) 서로의 오른 손을 뻗어 1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p> <p>3) 1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둘아다닌다.</p>	<p>※ 활동 시 말 없이 상대방에 집중한다.</p> <p>※ 다른 팀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p>
3	굴욕 가위바위보	<p>▣ 같은 팀이 되어 놀이하기</p> <p>1) 두 사람이 짹을 이룬다.</p> <p>2)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환호를 하고, 진 사람은 좌절하며 점차 자세를 낮춰간다.</p> <p>- 졌을 경우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 다음에는 왼쪽 무릎, 오른손바닥, 왼손바닥을 차례로 바닥에 대고, 모두 바닥에 댄 상태에서 또 졌을 경우 머리를 조아린다.</p> <p>3) 굴욕 가위바위보가 끝나면 상대방과 한 팀이 되어 다른 팀을 만나서 놀이를 이어나간다.</p> <p>처음에는 1대 1, 다음에는 2대 2, 4대 4, 8대 8 등으로 이어나간다.</p>	<p>※ 이겼을 경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호를 하고, 졌을 경우 좌절과 상실의 아픔을 표현해야 한다.</p>
4	인간 조각상	<p>▣ 나의 생각을 동작/ 움직임으로 표현하기</p> <p>1) 두 명씩 짹을 지어 마주 보고 선다.</p> <p>2) 가위바위보 해서 이간 사람은 조각가가 되고 진 사람은 조각 재료가 된다.</p>	<p>※ 조각가는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 조각재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p>

		<p>3) 이긴 사람은 조각 재료를 마음껏 조작하여 원하는 조각 품으로 만든다. (이때 진행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를 정해 줄 수 있다.)</p> <p>4) 조각이 완성되면 조각가는 조각품 옆에 선다.</p> <p>5)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진행자가 물으면 조각가가 조각의 제목을 말하고 조각재료는 제목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보여준다.</p>	
5	조각 레레이	<p>■ 모둠원과 함께 장소에 어울리는 인물 표현하기</p> <p>1) 5~6명이 한 모둠이 된다.</p> <p>2) 모둠별로 한 명씩 나와서 장소가 적힌 쪽지를 골라간다.</p> <p>3) 모둠원과 장소를 확인하고 순서를 정한다. (진행자가 순서를 정해줄 수 있다.)</p> <p>4) 모둠원 중 한 사람은 그 장소에 존재하는 인물, 또는 할 수 있는 행동의 대표적인 한 동작을 보여준 후 정지한다.</p> <p>5) 다음 사람은 앞사람의 모습과 어울리는 또 다른 동작을 보여주고 정지한다.</p> <p>6) 레레이 표현이 끝나면 다른 모둠원은 장소를 맞춰본다.</p>	<p>* 다양한 장소를 적은 쪽지를 준비한다.</p>
모둠 별 연극 만들 기	6	<p>■ 느낌을 색으로 나타내기 / 생각을 종이로 표현하기</p> <p>1) 모둠끼리 원형으로 앉는다.</p> <p>2) 최근 겪었던 일 중 떠오르는 것을 하나 골라서 그에 대한 느낌과 가장 비슷한 색의 색종이를 고른다. ‘거버넌스’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을 떠올려도 된다.</p> <p>3) 색종이를 이용하여 떠올린 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조각한다.</p> <p>4) 모둠원 모두 완성하면 돌아가면서 조각품이 무엇과 관련된 일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간단히 이야기 나눈다.</p>	<p>* 색종이를 준비하여 모둠의 가운데에 펼쳐놓는다.</p> <p>* 오랜 시간 종이를 접지 않고 찢거나 구겨서 간단하게 만든다.</p>

7	정지동작 만들기	<p>▣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모둠별 장면 구성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원과 자신의 종이 조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묻고 답한다. 서로의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선정한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정지동작으로 만든다. 모둠별 정지동작을 함께 감상한다. 	<p>※ 거버넌스에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고 서로 나누도록 한다.</p>
8	모둠별 장면발표하기	<p>▣ 모둠별 장면 발표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라이트인 정지장면 이전에 벌어진 일과 마지막 결말 장면까지 만들어본다. 발단, 절정, 결말의 세 장면이 완성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하는 과정에서 덧붙이거나 삭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다. 신문지와 테이프, 포스트잇, 천 등을 활용하여 소품을 제작하거나 공간을 꾸밀 수 있다. 각 모둠별 준비한 연극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p>※ 모둠원 전원이 빠짐없이 작업에 참여한다.</p>
9	소감 나누기	<p>▣ 느낌 공유하기/ 응원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당 두 개의 포스트잇을 준비한다. 연극을 보고 난 느낌을 적어서 왼쪽에 붙이고 응원 한마디를 적어서 오른쪽에 붙인다. 	<p>※ 포스트잇, 이젤페드, 펜을 준비한다.</p>

3. 교육 기대효과 및 환류 방안

▪ 교육 기대효과

- 학교 및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안착
-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연극을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 전문성 제고

▪ 환류 방안

- 민관학 거버넌스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

4.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연극놀이

▪ 나 너 우리 동네 만세

☞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높이고 신체활동을 활성화한다.

- 1) 자유롭게 걷고 있다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참여자들은 혼자 서서 '나'라고 외친다.
- 2) 다음 단계로 다시 자유롭게 걷다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둘씩 짹을 이뤄서 '너'라고 외친다.
- 3) 다시 걷다가 진행자의 신호에 맞추어 셋이 모여 '우리'라고 외친다.
이때, 모인 참여자들이 서로의 공통점을 세 가지 찾는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 4) 이번에는 자유롭게 걷다가 진행자의 신호에 맞추어 다섯 명이 모여 '동네'라고 외친다.
이때 진행자는 주제를 주고 정지동작 만들기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 5) 이번에는 전체가 만나서 '만세'를 외친다. 이때 동그랗게 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만세를 외친다.

▪ 박수 전달 놀이

☞ 서로 박수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고 이름을 익힌다.

- 1) 참여자 모두 원으로 선다.
- 2) 진행자가 시작하여 박수를 왼쪽으로 한바퀴, 오른쪽으로 한바퀴씩 전달해본다.
- 3) 이번에는 술래가 박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전달한다. 박수를 전달받은 사람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박수를 전달한다. 흐름을 깐 사람은 술래가 되어 놀이를 이어나간다.
- 4) 난이도를 높여 '점프' 박수를 소개한다. '점프' 박수는 박수를 두 번 치는 것으로 내 옆사람을 건너뛰고 박수를 전달할 수 있다. 박수 전달과 '점프'박스를 모두 허용하여 놀이를 진행한다.
- 5) 난이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악어' 박수를 소개한다. 악어 박수는 악어 입 모양으로 두 팔을 위아래로 벌렸다가 짹 박수를 치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박수이다. 이 때 두 팔은 박수를 전달받는 사람을 향하게 한다. 박수 전달과 '점프' 박스, '악어' 박수를 모두 허용하여 놀이를 진행한다.

▪ 몸짓 전달 놀이 (박수 전달 연계)

☞ 참여자들 즉흥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출한다.

- 1) 참여자 모두 원으로 선다.
- 2) 한 사람이 몸짓을 시작하면 그 몸짓을 연이어서 원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한다.
- 3) 시작한 사람까지 다시 돌아온 후 그 다음 사람이 뜻짓을 바꾸면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따라한다.
- 4) 이러한 방식으로 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짓을 해보고, 또 원 안의 모든 사람들의 몸짓을 따라 해보게 된다.

※ 진행자는 전체적인 에너지와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고 힘을 북돋운다.

▪ 대장 찾기 놀이 (몸짓 전달 연계)

☞ 상대를 관찰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1) 참여자 모두 원으로 선다.
한 명이 술래가 되어 뒤돌아 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대장을 한 명 뽑는다.
- 2) 술래가 원의 한가운데 서면, 대장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 3) 나머지 사람들은 대장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한다. 참여자들은 대장의 동작을 될 수 있으면 똑같이, 동시에 따라한다.
- 4) 술래는 사람들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누가 대장인지 맞힌다. 술래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준다.

▪ 무엇이 바뀌었나?

☞ 2인 1조로 짹을 이룬 뒤 서로 변한 점들을 찾게 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1) 두 사람씩 짹을 짓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 2) 진 사람은 뒤로 돌아앉고, 이간 사람은 짹 몰래 자신의 차림새 중 세 가지를 바꾼다.
- 3) 준비가 되면 진 사람은 뒤로 돌아서 주어진 시간 안에 짹의 차림새 중 달라진 점을 알아맞힌다.
- 4) 순서를 바꾸고 다시 진행한다.

▪ 고양이 쥐 술래잡기

☞ 몸을 통한 표현에 익숙해진다.

- 1) 참여자들은 넓은 공간에서 원하는 자리에 선다.
- 2) 참여자 중 한 명은 고양이, 또 한 명은 쥐가 된다.
- 3) 다른 참여자들은 두 명씩 짹지어 나란히 서서 기둥이 된다.
- 4) 쥐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기둥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서 붙을 수 있다. 기둥의 왼쪽에 붙으면 기둥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쥐가 되어 도망간다.

▪ 새-둥지-태풍

☞ 참여자 간 친밀감을 높이고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이다.

- 1) 참여자 모두 원 모양으로 서고 진행자는 원 안에서 놀이를 설명한다.
- 2) 3명이 한 팀을 이룬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아서 둥지를 만들고,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새가 된다. (손을 잡지 않고 비접촉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 술래(처음에는 진행자)는 어느 둥지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술래는 '새, 둥지, 태풍' 세 가지 구령 중 하나를 외칠 수 있다.
- 4) '새'를 외치면 둥지 안의 새들은 둥지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둥지를 찾아 들어간다. 이 때 술래는 재빨리 새가 되어 둥지에 들어간다.
- 5) '둥지'를 외치면 둥지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가서 둥지를 만든다. 옮긴 곳에서 새로운 새나 새로운 둥지짝을 만난다. 이때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새로운 둥지가 찾아올 때까지 서서 기다린다. 술래는 재빨리 둥지가 된다.
- 6) '태풍'을 외치면 모두 흩어져서 새로운 새나 둥지가 된다.
- 7) '태풍'을 외치기 전에 술래는 다양한 미션을 결합하여 외칠 수 있다.
예) “벽 짚고 와서 태풍!”을 외치면 모두 벽을 짚고 와서 새나 둥지를 만든다.

2. 개발팀 소개

■ 팀원 소개

○ 인경훈

-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 인천교육연극연구회 회원
- 인천원당등학교 교감

○ 이은희

- 마을교육활동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 다수 초중고 연극 강의(2009- 현재)

○ 김동윤

- 인천교육연극연구회 회원
- 인천가원초등학교 교사

○ 박성준

- 인천교육연극연구회장
-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 인천새봄초등학교 교사

○ 박소양

- 인천교육연극연구회 회원
-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사

○ 백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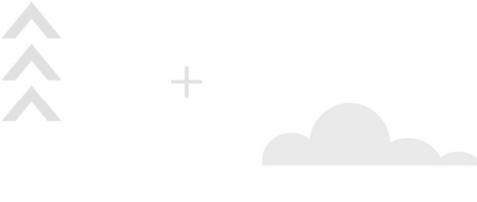
- 전국교사연극모임 대표
- 교육연극창작소 상상과 몸짓 대표
- 교사극단 나무를 심는 사람들

○ 최미선

- 극단 공감 대표
- 한국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인천지회 이사
- 연극교육연구회 나무와 열매 대표
-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수 출강

■ 참고문헌

- 구민정, 권재원(2018), 『교과서로 연극하자』, 서울: 도서출판 다름.
- 김용련(2019), 「남동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운영에 따른 의견조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양세라(2019), 「공동체의 소통도구로서 연극의 역할에 대한 연구 – 드라마 자전거를 응용한 대학 교양수업 모델 탐색」, 한국연구재단.
- 조성익(2017), 「교육특구 결정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역동적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최지영(2007), 『드라마 스페셜리스트가 되자』, 서울: 연극과인간.
- Lisa Bany winters(2011), 『온 스테이지; 무대에서 놀아요!』, 서울: 정은문고.
- Philip Taylor(2009), 『시민연극(김병주 역)』, 서울: 청동거울.



2020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참여형 교육연극을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

발행일: 2020.12.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총 괄: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단 장 조선미

기 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관 김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장학사 김혜선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정각로9(구월동)

